

# 읽기·쓰기·셈 못하는 초등생 많다

### 제주도교육청 을 3월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읽기 317명, 쓰기 283명, 셈하기 298명 학습부진

도내 기초학력(읽기, 쓰기, 셈하기) 미달 초등학생(3~6학년)들이 영역별로 약 300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들 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내실화에 나서고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을 3월 학교별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

을 위한 3R's(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검사 결과 영역별 기준점수 미도달 학생은 읽기 317명, 쓰기 283명, 셈하기 298명으로 나타났다. 3R's 진단검사는 초 3학년과 교과 진단검사 결과 미도달 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초 3학년에 미도달 학생이 많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초 3학년 6776명 중 읽

기 184명(2.72%), 쓰기 186명(2.74%), 셈하기 182명(2.69%)이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주요 요인을 난독 및 읽기 곤란, 다문화, 탈북, 정서행동(ADHD 포함), 복지대상, 학습무기력 등 6가지로 범주화하고 1:1 맞춤형 읽기 학습지도 프로그램, 학습지원멘토링, 학력지원 학습코칭단, 탈북맞춤형멘토링, 학생상담사 상담 지원, 생각자립 프로그램, 언어치료비 지원, 동지키움멘토링,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기초학력 향상 교원역량 강화 연수 등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학교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외부 보조강사를 수업 또는 방과후 시간에 투입·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학교를 지난해 20개교에서 올해 41개교로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기준 미도달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책임지고 지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5년만에 ↓ 국토부 30일 가격 공시... 전년비 6.93%p 하락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전년에 비해 6.93%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3월 15일~4월 4일) 및 중앙부동산가격공

시위원회의 심의(4월 26일)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인 경우 2.49% 하락했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4.44% 상승한 것에 비하면 6.93%p 하락한 셈이다. 2014년 0.2% 하락한 뒤 2015년 9.4%를 시작으로 2016년 기록적인 25.67%와 2017년 2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2018년 기준으로 4.44%의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를 보면 1억 초과 3억이하가 가장 많은 7만8167호로 57.74%를 차지했다. 전년 56.48%에 비해 1%p 이상 높아졌다. 이어 1억이하가 4만8791호로 36.04%를 점유했다. 전년 점유율(36.1%)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3억 초과 6억 이하는 7950호(5.8%)로 8964호(7.0%)였던 전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9억 초과 30억 이하는 96호로 전년 73호에 비해 23호 늘었다. 조상윤기자

## ■ 道, 정수장·마을상수도 105곳 검사해보니...

### 설사·구토 원인 노로바이러스 ‘無’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도내 정수장과 마을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Noroviruses)를 검사한 결과, 미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설사·구토 등이 원인 병원체이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된다.

검사는 지하수인 시설 중 시설용량이 1일 300t 이상인 정수장 16곳과 마을상수도 89곳

등 총 10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본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지정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인 DK EcoV 환경미생물 연구소에 의뢰했다. 그 결과 모든 지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제주도의 수돗물 수질 안전성을 확인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05곳 시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도의원 2명 당선무효 위기

### 선거법 위반 양영식의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 유권자들에 금품살포한 도의원 배우자 징역형 구형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의회의원 2명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양영식의(연동갑·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영식의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지인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

지로 발언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려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입후보자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양 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발언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판세 조사’를 15년지기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특히 해당 발언이 대중에게 전파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매수)와 같은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 운동의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이익제공금지 위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지역구 도의원 A씨의 배우자 B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송은범기자

##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휴일 아닌 평일 적용해야”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골프장들이 손님에게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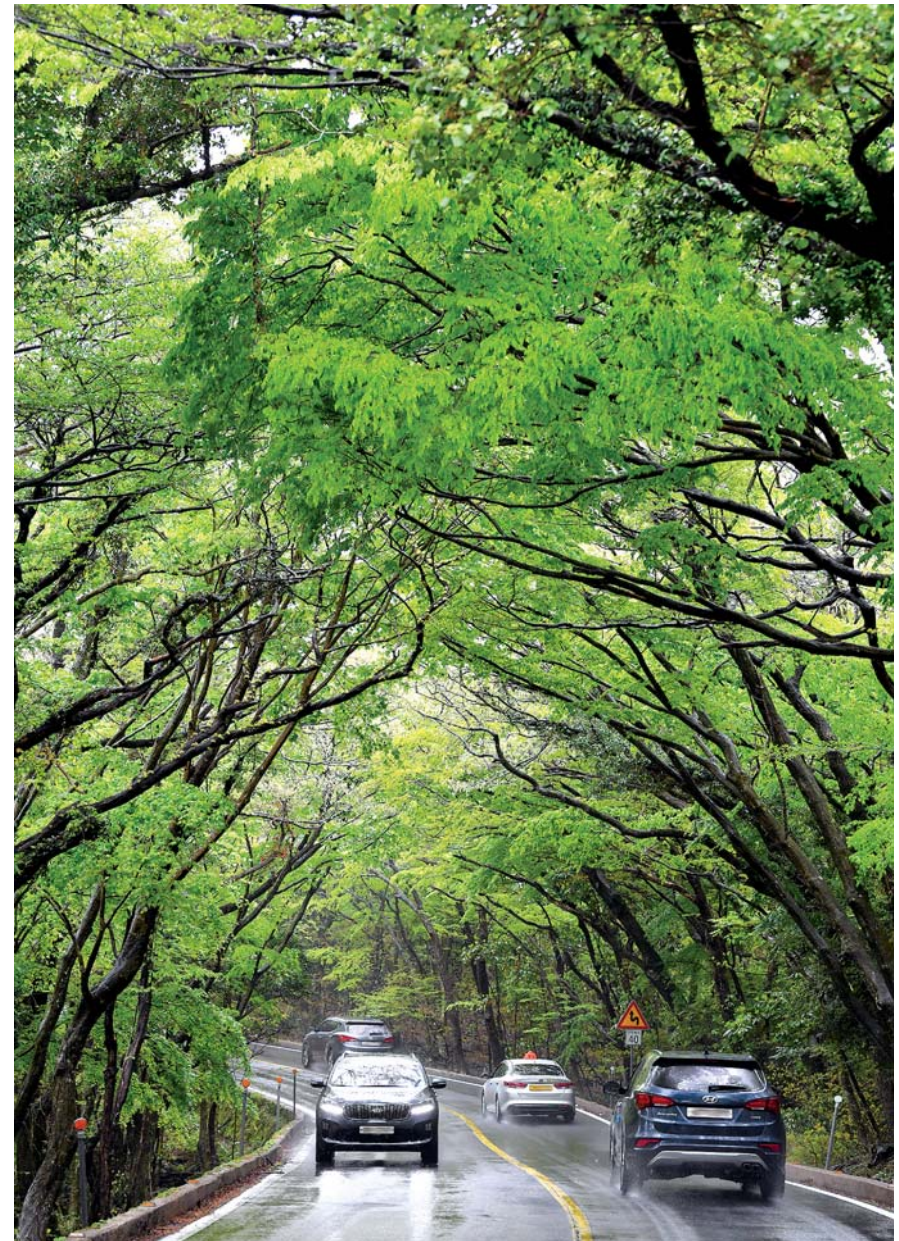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국내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비자 대부분 공휴일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월 5일 학생문화원서 어린이날 행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5월 5일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및 야외잔디광장에서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행복 2019 어린이대축제’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여는마당, 공연마당, 체험마당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삼삼여고 교악대 아르모니아윈드앙상블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여는 이날 행사는 어린이인형극 ‘뽕뽕콩따콩’ 공연이, 야외잔디광장에서 마임극단 동심 대표인 이경식의 ‘행복한 매직 마임쇼’와 포레스타 앙상블의 ‘성악앙상블’, 라틴싱글여단의 ‘댄스 스포츠’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오은지기자



초록 빛깔 머금은 5·16도로 신록의 계절 5월을 목전에 둔 29일 5·16도로 숲터널이 어는 새 초록색으로 가득차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상쾌함을 전해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www.ymjj.co.kr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Creativity / 창의  
Harmony / 화합  
Donation / 기부

2019 YOUTH JEJU VOL.8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청년제주